

제1차 교육과정기 음악과 교과서 연구(1)

- 서지 사항을 중심으로 -

김 상 은*

본고는 제1차 교육과정기(1955~1963) 중학교 음악과 교과서의 실태파악과 서지사항 확인 및 내용 구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규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소장 목록과 실제 소장지의 확인 2) 도서관의 통폐합 등으로 소장지를 알 수 없었던 교과서의 소장지 확인 3) 교과서의 발행 실태 규명 4) 10년 이상 사용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따라서는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은 교과서의 문제 지적 및 원인 확인 5) 같은 내용의 교과서가 복수 출판사에서 발행된 문제점 지적 및 원인 고찰 6) 서기력 사용이 늦어진 이유 7) 교육과정 개정 없이 제재곡이 개정된 문제점 지적 8) 교과용 도서 출판을 엄격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재나 표지가 바뀌는 문제 9) 교과서 서지 사항 및 출판사 별 내용 구성 등을 약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출판 상황을 보충함으로써 음악과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어 교과서 연구나 정확한 정보 공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교과서가 발견되지 않은 수문각 교과서가 발견되어 완전한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과 교과서, 발행 실태, 서지사항, 내용 구성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및 논의
- V. 서지 내용 구성
- VI. 결론

* 제주대학교 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도서의 디지털화 시대에 살고 있다. 종이로 되어 있던 문서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클릭 한번으로 집에서 모든 자료를 연람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를 디지털화 하였으며¹⁾, 구글은 2004년 Google print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하버드, 스탠포드, 미시건, 옥스퍼드 대학과 뉴욕 공립도서관과 손잡고 소장 장서를 디지털 스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²⁾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한 이후 디지털도서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2009년 5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인 '디브리리'를 개관하였다.³⁾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국가 기관 뿐 아니라, 각 대학도서관에서도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EU와 맺고 있는 협약으로 '지식'에 대한 자료의 디지털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접근성·편리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정보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가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 공개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제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음악과 교과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정보화 추진 위원회 2008. 7. 검색

http://ipc.go.kr/ipckor/news/news_view.jsp?num=16076&topic=104&part=&group=104005&gubun=kor2&fn=&req=&pgno=1

2)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 6. 검색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921079459&cp=nv>

3) 디브리리 <http://www.dibrary.net/boards/show/1/2/0.do.do> 2009. 6. 검색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1955년 8월 1일에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으므로 55년이 지난 현재, 음악과 교과서의 발행 상황이나 보존상태, 그리고 논문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자세히 언급하자면 선행연구들은 제2차 교육과정기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제1차 교육과정기는 교과서가 어느 출판사에서 몇 종류가 발행되었는지, 국정·검정·인정으로 발행되었는지, 언제부터 배포되었는지, 현재의 보존 상태는 어떠한지 등의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교육과정기 교과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작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 대한 기초 조사가 본고의 목적이며, 전 세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디지털시대에 음악과가 빠르게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 이상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가 훼손되기 전에 기초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절박감조차 느끼게 된다. 따라서 본고가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제1차 교육과정기의 음악과 교과서 발행 상황은 어떠한가?
- (2) 목록에 있는 교과서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 (3) 존재가 확인된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4) 확인된 교과서의 구성은 어떠한가?

본고에서 기술하고자하는 음악 교과서 연구는 음악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교과서 연구이므로 교육연구이며, Crowl(1993)의 교육연구 하위 분류 중 역사연구⁴⁾에 속한다. 성태제(2005)는 역사연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사료가 타당성이 없을 때 역사연구는 타당성을 잃게 되므로 얼마나 타당한 역사자료에 의존하였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⁵⁾ 따라서, 제1차 교육

4) Crowl, T. K. (1993) *Fundamentals of Educational Research*. Madison, Wis.: Brown & Benchmark. p.6.

5) 성태제(2005)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pp.260~261.

과정기는 사료인 교과서의 고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논문의 지면의 제약도 있으므로 연구를 둘로 나누어, 우선 연구(1)에서 사료 고증을 통한 서지 연구를 주로 다루고 연구(2)에서는 고증된 사료를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 연구를 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교육과정기에 대한 교과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다. 신귀복(1974)은 제2차 교육과정기의 음악교과서를 연구하였는데 발행교과서 14종 중 3학년의 가창곡을 분석하였으며, 김문정(1974)은 2차 14종(42권)에 수록된 국악항목 및 국악수업 저해요인 분석, 전민자(1974)의 14종에 해설된 우리나라 작곡가의 출판사별, 학년별 분석 등이 있으며, 이 후로 제3차 교육과정에서 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는 교과서 분석이 다량 연구되었다. 그러나 제1차 음악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는 제1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변천사를 참고하면서 논을 전개하게 될 것인데, 제1차 교육과정기를 포함하면서 역사적 맥락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변천사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로는 이종국(1991, 2001, 2005, 2008)과 유봉호(1992), 한국교육개발원(1982), 대한교과서사(1998) 등이 있다. 이종국(1991)은 지금까지의 교과서 관계연구 경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고 1)교육과정 연구에 집중성을 두고, 이의 결과물인 교과서와 연결시켜 논한 것, 2)단위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논한 것이며, 3)교과서의 모형 개발, 구조 및 그 개선 방안⁶⁾ 등을 언급하고, 덧붙여서 최근에는 정책적 연구에 관심이 편중되어 있고 기초 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서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6) 이종국(1991),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16.

II. 이론적 배경

타일러는 서지학을 사본서지학(Manuscript bibliography)과 간본서지학(Printed bibliography)으로 대별하고 간본서지학을 외관적 서지학과 내용적 서지학으로 나누었다.⁷⁾ 외관적 서지학이란 물적 서지학(Material bibliography)을 말하는데 형태를 논하는 서지학, 즉 도서의 외부적 특질·가격 및 진기도·인쇄자명·간행년 및 발행지·특수 판식 등을 연구하는 서지학이고, 내용적 서지학이란 문건적 서지학(Literary bibliography)·지적 서지학(Intellectual bibliography)으로 내질을 논하는 서지학 즉 도서의 내용에 의해 그 문건적 견지에서서의 관계를 논구하는 서지학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이종국(2008)은 교과용 도서의 체재를 외적 체재와 내적 체재로 구분하고, 외적 체재는 판형, 활자, 지질, 인쇄 효과 등을, 내적 체재란 주로 내용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형상화하는 표지, 화보, 머리말, 차례, 본문, 색인, 삽화 등이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타일러의 간본서지학(Printed bibliography)을 중심으로 하되 교과용 도서인 중학교 검인정 음악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교과용 도서의 체재에 대하여 언급한 이종국(2008)의 외적 체재와 내적 체재를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편찬된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45호, 단기4288)’으로 발표되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음악과의 일반목표’, ‘중학교 음악과의 목표’, ‘각 학년의 지도목표’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는데, 중학교 음악과의 목표는 “음악 교육의 일반 목표에 따라 가창, 기악 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 등의 습득으로 대별한다.”⁸⁾고 하였고, 교과서 편찬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벗어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편찬될 교과용 도서는 본 과정의 지도 목표와 내용을 구현함에 힘 쓸 것이며, 본 과정의 세밀한

7) 하동호 역(1979). 서지학. 탑출판사. pp.25~26.

8) 문교부(단기4288/1955). 중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5호 별책. p.1.

검토 아래, 지도 범위와 정도를 조절(調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활용은 본 과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루어 질 수 없으며, 모든 학습자료도 본 과정의 취지 아래 이용되어야 한다.”⁹⁾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발행 제도는 정부가 관장하는 교육행정의 한 분야로 운용되고 있다.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 및 지도서, 인정도서 등을 말하는 데, 그 종류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다. 국정도서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검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인정도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국정도서는 1종 도서라고도 하며, 검정도서는 2종 도서라고도 한다. 음악교과서는 제3차 교육과정기에만 국정도서로 발행되었으며 나머지 시기에는 모두 검정도서로 발행되었다. 1956년에 평가된 제1차 교과서는 제1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1955년 11월 교과서 검인정 규정(1950. 12. 21 개정 대통령령)에 의하여 편수국에서 작성 배포한 세부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¹⁰⁾

Ⅲ. 연구 방법

1. 목록 작성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이 되는 교과서의 목록은 각각의 도서관의 교과서 목록을 이용하여 발행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제1차 교과서 발행 목록은, 1)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교과서목록’ 1979, 1980, 1981, 1982, 1991년판을 조사하여 제1차 교육과정 하의 발행 교과서 목록

9) 문교부(단기4288). 중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5호 별책. p.3.

10) 한국교육개발원(1982).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한국교육개발원. p.65.

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2)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사범대 학술자료센터,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 소장된 교과서 목록을 통하여 실제 교과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3) 교과서박물관 자료실에 있는 ‘한국 교과서목록 작성 및 그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¹¹⁾와 부록인 중학교 음악교과서 목록을 정리하였다. 4) 마지막으로, 위의 세 가지작업에서 발견하지 못한 교과서를 목록화 하기위해 사범대학교가 있는 전국의 대학교 도서관¹²⁾, 전국의 시립도서관 및 교육박물관¹³⁾을 모두 검색하여 중학교 음악교과서 목록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제1차 교육과정기의 음악과 교과서가 목록화 되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교과서목록’, 한국교과서연구소의 ‘한국 교과서 목록 작성 및 그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라 작성된 교과서목록, 각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에 있는 교과서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소장처라고 언급된 곳에 그 교과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실제 이 교과서들을 찾는 자료 확인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조사된 제1차 교육과정기의 음악과 교과서(이하 제1차 교과서로 약칭)는 아래 <표 1>과 같이 모두 14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정 교과서로 발행되었다.

11) 최영복 외 5인(1998).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소.

12) 한양대, 건국대, 한국외대, 단국대, 홍익대, 상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동국대, 중앙대, 연세대, 인하대, 공주대, 충북대, 교원대, 서원대, 청주대, 한남대, 전북대, 전남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순천대, 우석대, 부산대, 대구대, 영남대, 경북대, 경남대, 계명대, 경상대, 신라대, 안동대, 대구가톨릭대, 관동대, 강원대, 제주대, 경기대

13) 사이버 교과서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한밭도서관, 테미도서관, 한밭교육박물관 등

<표 1> 교과서 발행목록

교육과정	교과서 발행 출판사	
제1차 교육과정	1.국민음악연구회	1,2,3학년용
	2.동아출판사	1,2,3학년용
	3.문화교육출판사	1,2,3학년용
	4.민중서관	1,2,3학년용
	5.백영사	1,2,3학년용
	6.새로이출판사	1,2,3학년용
	7.수문각	1,2,3학년용
	8.우중사	1,2,3학년용
	9.음악예술사	1,2,3학년용
	10.창인사	1,2,3학년용
	11.친우문화사	1,2,3학년용
	12.탐구당	1,2,3학년용
	13.한국교과서주식회사	1,2,3학년용
	14.형설문화사	1,2,3학년용
계	검정교과서 14종 42권	

2. 교과서 소장처 및 실물 확인

기초 조사에서 작성된 목록의 내용과는 달리 제1차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교과서는 소장처가 바뀌어 있는 곳이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소재) 도서관에는 교과서 서고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제1차 교과서를 찾을 수 없었으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과서박물관을 통하여 제1차 교과서 일부를 찾을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서초구 소재)에서는 제1차 교과서 일부를 확인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없는 교과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강남구 소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소재의 대학교 중, 고려대학교에는 학술정보관(CDL : Centennial Digital Library)과 중앙도서관으로 나뉘어 보관하고 있었다. 처음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자료검색을 했을 때, 1차 교과서 1, 2학년은 학술정보관에 소장,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중앙도서관 서고1층(폐가)에 있었으나 분실되었다고 나와서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했다. 실제 학교를 방문하여 찾아본 결과 학술정보관에는 자료검색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1차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었으며, 중앙도서관에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었고, 서고 1층이 아닌 서고 2층 폐가에 있었다. 근래에 고려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검색을 하면 3학년 교과서는 서고2층(폐가)에 있으며, 도서상태는 대출불가-열람가능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교수학습자료센터에 소장하고 있으나, 제1차 중학교 음악과 교과서는 음악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목록에 있는 지방 소재 대학교 도서관 및 교육박물관 중,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에 있는 제1차 교과서, 서원대학교(청주소재) 교육박물관에 있는 미군정기 및 제1차 교육과정 하 교과서, 한밭교육박물관(대전소재)에 있는 제1차 교육과정 하 교과서이고, 제주교육박물관에도 제1차 교과서 일부가 소장되어 있었다. 이상으로 실물 확인 결과를 소장처, 발행년 및 몇 학년용인지, 교과서의 제목, 출판사 이름과 저자를 <표 2>로 병기하였다.¹⁴⁾

<표 2> 제1차 교과서 도서관 소장 정보

발행연도	학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소장처
1956, 1957, 1958, 1959, 1965	1	중등음악 교본	국민음악 연구회	이강엽	경기도립, 고대학술, 교과서박물관, 서원대, 이대음도
1956, 1957, 1963	2				고대학술, 교과서박물관
1956, 1959, 1960, 1963	3				고대중도, 교과서박물관, 국립중앙, 서원대, 한밭교육

14) 경기도립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고대학술은 고려대학교학술정보관을, 이대음도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도서관을, 고대중도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을, 한밭교육은 한밭교육박물관을, 국립중앙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주교육은 제주교육박물관을 말한다.

발행연도	학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소장처
1960, 1962, 1965	1	새 중학음악	동아 출판사	박태준, 이상훈	한밭교육, 공주대
1960, 1963	2				한밭교육, 이대음도
1960, 1963	3				국립중앙, 서원대, 한밭교육, 이대음도
1956, 1957, 1959, 1962, 1963	1	중학음악 교본	문화교육 출판사	음악교재 연구회편	국립중앙, 고대학술, 교과서박물관, 이대음도
1957, 1961, 1963	2				고대학술, 국립중앙, 이대음도, 교과서박물관
1957, 1963	3				고대중도, 국립중앙, 교과서박물관
1956	1	중등음악	민중서관	나운영	제주교육
1957, 1963	2				교과서박물관
1956, 1960, 1963	3				국립중앙, 교과서박물관
1956, 1963, 1964	1	중등음악	백영사	조상현, 김달성	고대학술, 이대음도
1956, 1960	2				고대학술, 한밭교육
1956, 1958, 1964	3				고대중도, 국립중앙, 한밭교육
1956, 1957, 1963, 1964	1	새 음악교본	새로이 출판사	금수현	고대학술, 교과서박물관, 서원대, 이대음도
1956, 1963, 1964	2				고대학술, 교과서박물관, 이대음도
1956, 1963, 1964	3				고대중도, 교과서박물관
1960, 1963	1	중학교 음악	우중사	김학상	이대음도, 한밭교육
1956, 1959, 1960, 1963	2				공주대, 교과서박물관, 한밭교육, 이대음도
1960	3				한밭교육
1960, 1964, 1965	1	새로 엮은 중등음악	음악 예술사	김성태	국립중앙, 교과서박물관, 서원대
1959, 1963, 1964, 1965	2				국립중앙, 이대음도, 교과서박물관
1963	3				이대음도, 교과서박물관

발행연도	학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소장처
1956, 1960, 1961, 1963, 1964	1	중학음악	창인사	이홍렬, 이성삼, 윤용하	고대학술, 교과서박물관, 이대음도, 서원대
1956, 1961, 1963	2			이홍렬, 이성삼→ 이홍렬, 이성삼, 윤용하	고대학술, 교과서박물관, 이대음도
1956, 1960, 1963	3			이홍렬, 이성삼→ 이홍렬, 이성삼, 윤용하	고대학술, 이대음도
1957, 1959, 1960, 1963, 1964	1	중등음악	친우 문화사	이승학	고대학술, 국립중앙, 이대음도, 교과서박물관
1956, 1957, 1963	2				교과서박물관, 고대학술, 이대음도
1956, 1957, 1960, 1961, 1963	3				고대학술, 한밭교육, 교과서박물관, 이대음도
1957, 1960, 1963	1	신 중등음악	탐구당→ 한국 교과서 주식회사	김동진	고대학술, 한밭교육, 이대음도, 교과서박물관
1958, 1963, 1965	2				한밭교육, 이대음도, 교과서박물관
1963, 1965	3				이대음도, 교과서박물관
1957	1	중등음악	형설 문화사	김성태	한밭교육박물관
1957	2				한밭교육박물관
1957	3				한밭교육박물관

확인된 교과서 13종 39권 중 출판사별로 1권씩을 그림 자료로 첨부한다. 주로 1학년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교과서가 없거나 표지의 선명도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2학년이나 3학년 교과서로 제시하였다.



(국민음악연구회)



(동아출판사)



(문화교육출판사)



(민중서관)



(백영사)



(새로이출판사)



(우중사)



(음악예술사)



(창인사)



(친우문화사)

(탐구당/한국교과서)

(형설문화사)

[그림 1]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출판사별 이미지

IV. 결과 및 논의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는 발행, 보존,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서지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한 목록에는 있으나 교과서가 소장되어 있지 않은 문제, 도서관의 통폐합 등으로 목록에서 조사된 소장처와 실제 소장되어 있는 곳이 다른 문제 등은 이미 지적한 바이며, 결과 및 논의에서는 이것 이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 고자 한다.

1. 출판된 교과서가 한 권도 남아 있지 않은 문제

수문각에서는 1·2·3학년용 음악 교과서를 모두 출판하였다. 그러나 남아 있는 교과서가 한 권도 없어서 발행 상황 확인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 목록상으로는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제1차 교과서의 초판본이 1956년에 출판되었고 마지막

출판이 1965년인 것에 비추어 보면 10년 동안 사용된 교과서가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우선 목록 작성의 오기이거나 기록 보존의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과서 보관 문제를 포함하여 제1차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교과서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시대적 배경에 기인하는 이유가 크다. 제1차 교육과정기란 제1차 교육과정이 반포된 1955(단기4288)년 8월부터 제2차 교육과정이 반포되는 1963년 2월 까지를 말한다.¹⁵⁾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되고, 1950년 6월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 규정'이 공포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부산으로 이동한 문교부는 1951년 3월 문교부령 제16호로 '교과과정 연구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여 2개의 기구가 각론과 총론으로 분담하여 연구를 하였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문교부가 서울로 복귀한 후 교육제도의 정비, 교육시설의 정비, 교육과정의 개편 등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인구의 증가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교육열이 고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육과정 연구에서 교과과정이 중점적으로 연구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1차 교육과정기를 교과과정기라고도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여 졌고 교육과정의 한 분야로 교과과정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최근에는 이 시기를 제1차 교육과정 시행기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¹⁶⁾ 이러한 이유로 하여 제1차 교육과정이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사업은 국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발행과 아울러 두 가지 기간 행정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교부는 1955년 10월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을 발표

15)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시대구분은 연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의 고시년, 출판년, 최초 사용년, 완전시행년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시대구분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이다. 본고는 교육과정 고시년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교육과정 고시년 까지를 기간으로 하였다.

16) 유봉호(1992).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p.309.

하고 여러 보완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확정했으며, 이것은 처음으로 교과용 도서 검인정 업무를 제도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¹⁷⁾ 그러나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을 발표하고 합격본을 발표하기 까지 불과 4개월 15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출판사마다 저자 교섭과 제작에 이르는 과정이 사실상 2개월을 넘기지 못했던 점들은 당시 언론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과정이었으며 또한 교과서도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반면 일정에 쫓기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전쟁과 사회적인 격변기를 거치는 시기로서 교과서의 보존이 국가기관에도 일부만 보존되어 있어, 발행 교과서 전체를 볼 수 없는 것 등이 교과서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과서의 발행 여부나 보존 여부 등 연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중 초판본이 남아있는 것은 백영사의 ‘중등음악’, 새로이 출판사의 ‘새음악교본’, 창인사의 ‘중학음악’ 뿐인 것으로도 교과서 보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거나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내용이 같은 교과서가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된 문제

탐구당과 한국교과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신중등음악’은 출판사만 다를 뿐 내용이 같은 교과서이다. 뿐 만 아니라 목록에는 없는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명으로 발행된 교과서가 실제로 확인되었다. 세 종류 모두 실물확인 결과, 저자, 목차, 내용이 같은 교과서였다. 아래에 표지 사진을 대비하여 예시한다.

17)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 pp.185.



(탐구당)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그림 2] 각기 다른 곳에서 출판된 '신중등음악' 교과서

이처럼 같은 교과서가 여러 출판사 명으로 출판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일부는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와 각 출판사에서 2중 발행되었다. 백영사 4291년, 4292년판 2, 3학년 교과서는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로 발행되었다. 또한 1963년판 1학년 교과서는 백영사, 2학년 교과서는 한국교과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되었고, 1965년 1학년 교과서는 한국교과서주식회사와 백영사 두 곳에서 발행되었다. 탐구당 1학년용은 탐구당과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되었다. 일부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서지사항에 발행처와 공급처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우중사의 경우 발행은 우중사에서 공급은 한국교과서주식회사에서 했으며, 형설출판사 1963년판 교과서의 공급처가 한국교과서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 등이다. 이것은 출판과 판매가 달랐던 당시의 검인정 교과서 공급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인다. 교과서 출판계는 도서의 원활한 조정·공급을 목적으로 1952년 11월 11일 피난지 수도 부산에서 교과서 공급자 카르텔 형식으로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식회사를 발족시켰다. 문교부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각 출판사에서 생산한 도서를 상기 회사에 위탁 판매하도록 하고 선전은 공동으로 하는 체제였다. 이 회사는

1957년 7월에 검인정 교과서의 공동 생산 공급체인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로 개편되었는데, 교과서의 공급경로를 보면, 문교부 발행과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새 학기의 필요 부수를 알려 주고 그에 따른 생산 지시를 하면, 협회에서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에 알려 주어 생산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 회사는 전국의 지정 공급인으로부터 주문서를 받고 생산 준비에 대비하는 체제였다.¹⁸⁾ 검인정 교과서의 발행처 표기 문제는, 출판은 원칙적으로 각 출판사가 맡았으나 판매만은 과중한 경쟁을 막고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구성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발행처와 공급처가 다르게 표기되거나 아예 공급처로 출판사를 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검인정 교과서의 출판이 1954년 말에는 469권이었던 것이 1956년에는 916권이 평가되었을 정도로 증가되어 출판업계는 치열한 판매경쟁과 채택의 부작용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¹⁹⁾

3. 출판연도 단기표기 문제

교육과정기 교과서중 단기로 출판연도가 표기된 것은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뿐이다. 이 시기는 아직 단기를 쓰고 있던 시기였다. 우리나라가 서기력을 쓰게 된 것은 1961년 5.16이후 12월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본 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1962년부터 사용되었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은 단기 4288(서기1955)년으로 발표되었으며 교과서도 단기력을 쓰고 있다. 다만, 1962년부터 서기력을 사용하도록 발효되었으나 음악교과

18)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 pp.183~185.

19) 한국교육개발원(1982).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p.79. 이 책의 p.66에는 1956년의 검인정 교과서는 1954년 말에 469권이었던데 비하여 916권이 평가되어 출판업계에 교과서 붐을 일으키는 감이 있었으나 이런 증가의 결과는 치열한 판매 경쟁과 더불어 채택의 잦음 등 부작용을 빚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 단체의 전신으로 1952년 11월에 부산에서 발족한 한국검인정도서공급회사를 들고 있다.(p.77.)

서는 1963년부터 서기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관례상 교과서가 미리 출판되는 관행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4. 같은 출판사라도 출판 연도에 따라 제재곡이 다른 문제

출판사에 따라 제재곡이 바뀌고 있는 교과서가 있었다. 국민음악연구회 4291(1958)년 판과 1963년도 판 1학년 교과서의 제재곡이 다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1차 교과서는 10년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재곡의 선택이 달라졌으며 이런 이유로 하여 교과서의 일부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종국(2008)에 따르면 제1차 검인정 교과서는 1958년에 편찬 및 사열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일부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재검정 또한 꾸준히 계속되었다고 적고 있다.²⁰⁾ 제재곡에 관하여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작성하기로 한다.

5.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도 교과서 체제가 다른 문제

교과서 체제란 교과서 표지나 색과 같은 외적 체제를 말한다. 음악예술사 1963년 판 3학년 교과서는 두 종류가 있고, 표지에 1963년 판이라고 쓰여 있는 것과 쓰여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내용은 완전히 같다. 또한 2학년용 1963년 판과 1964년 판 표지색이 다르나 내용은 같은 것 등이다. 서지사항에 대하여는 위에서 제1차 교과서는 편수국에서 작성 배포한 세부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교과서의 체제, 구비할 형식, 출판에 관한 유의사항, 즉 판종, 활자, 행수, 인쇄, 체제, 제본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음악과 교과서는 5.7판 이상 5.7배판 이하로 판종이 정해져 있었다. 활자는 5호 이상, 1면당 행수는 5.7판 5호 기준으로 25행, 1행에 32자로 제한하고 여간, 문장 부호는 반각을, 부호와 다음 글자는 전각으로 띄어 쓰게 하고 있다. 인쇄

20)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 p.185.

에 대하여는 선명하고 농담이 없도록 하며, 글자 이외의 지면을 깨끗이 하고, 글줄은 바르게 삽화는 명료하게 하도록 하였다. 표지 체제는 120군 이상의 후지로 검인정 허가표시를 안표지에 하며, 제본은 견고하고 책면을 고르게 하도록 지정하고 있는데²¹⁾ 제1차 교과서는 이 사열 기준을 적용하여 만들어 졌다.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로 행정 지도를 하여 점차 발전되었으나 그 성과는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²²⁾ 실제로 제1차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판종이 5.7판(210×148mm) 이상 5.7배판(297×210mm) 이하에 해당하는 4.6배판으로 발행되었으며, 판크기는 257×188mm으로 만들어 졌다. 교과서 가격은 280원에서 450원까지 있으며 1963년부터 원으로 표시되어 70원 또는 80원으로 판권지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엄한 규정이나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 중 검인정 허가표시를 안표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출판사가 겉표지에 표기하고 있는 것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과서 체제가 달라진 문제점들을 보면 중도에 세부 사항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과정기 음악과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V. 서지 내용 구성

교과용 도서의 체제는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로 구분된다고 위에서 언급하였다. 서지 내용 구성에서는 주로 내적 체제 즉 내용 조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표지(위에서 일부 이미지 사진으로 제시함), 화보, 머리말,

21) 한국교육개발원(1982).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p.77.

22) 상계서. p.76.

차례, 본문, 색인, 삽화 등의 요소 중 머리말과 차례(목차)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구체적으로는 출판사 별로 살펴보기, 저자의 머리말을 참조하면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중학교 음악과의 목표인 가창, 기악 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 등의 양상, 교과서 체재, 출판연도에 따른 제재곡의 변화 등을 차례(목차)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제1차 교육과정기 음악과 교과서 연구(2)'로 넘기고자 한다.

1. 국민음악연구회 “중등음악교본”

4289~4292년 교과서의 경우 악전, 악보 읽기, 악곡, 음악사에 중점을 두어 편찬되었다. 음악사는 고대~현대의 음악사와 음악가의 전기를 1, 2, 3학년에 차례로 넣었다. 1963년판의 경우, 음악의 종합적 이해와 습득을 위해 가창, 이론, 음악사, 기악, 악보 읽기, 감상의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게 엮어져 있으며, 악곡은 음악 지식의 관련아래 일관성 있게 배열되어 있다.

맞춤법에 있어서 1956년, 1957년, 1958년판은 올드 블랙조, 속사김으로 1963년, 1965년판은 올드 블랙 조우, 속삭임으로 표기가 바뀌었으며, 1956년, 1957년, 1958년판 모차르트의 자장가와 슈베르트의 자장가는 1963년, 1965년판에서 '자장노래'로 바뀌고 있다.

2. 동아출판사 “새 중학 음악”

1960~1963년만 발견된 동아출판사의 경우, 가창, 기악, 이론, 창작, 감상의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에 힘쓰고 있다. 가창곡은 음정과 리듬이 쉬운 것부터 차례로 엮고, 배열은 학기, 계절, 달 등도 고려하여 실제 수업에 맞도록 하였다.²³⁾ 가창곡 선택은 명곡, 각국의 민요, 우리나라 가곡 등을 광범한 자료에서 정선하였고, 매달 교재의 처음에 음정연습과

23) 1학기를 4월~7월·9월, 2학기를 10월~12월·2월~3월로 구성한 것은 일본의 학기제와 비슷하여 제1차 교육과정 당시 학기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리듬연습을 넣었다. 독보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배열에 신경을 썼고, 다장조 계명창에서 시작하여 사장조, 바장조로 나아가고 있다.

3. 문화교육출판사 “중학 음악교본”

단기4290~4292년 교과서의 경우, 악전, 가창, 창작, 기악공부, 음악사의 다섯 항목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수록되어 있다. 악전은 가창, 창작, 기악 등과 밀접한 관련 하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창에 있어서 보고 부르기를 많이 훈련시킬 수 있게, 쉽고 새로운 곡을 많이 택하고 있다. 음악의 3요소인 가락, 리듬, 화음을 동시에 훈련시켜 창작을 할 수 있게 중점을 두었다. 창작에 있어서는 가창과 연계하여 듣고 적기, 사보법, 악곡의 형식, 형식의 구성, 리듬의 구성, 멜로디의 구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곡을 할 수 있게, 기악공부의 경우 피아노와 올겐의 건반을 이용해서 실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63년판의 경우 가창을 위한 악곡 44개를 ‘노래’라 하여 따로 분류하였고, 이론, 성악을 위한 기초공부, 음악사를 구분하여 악전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작곡가의 전기와 감상곡을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에 따라 음악사 및 전기를 합쳐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창작영역의 활동이 체계적이며 분량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기악에서는 타악기,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관악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민중서관 “중등음악”

4289년~1963년판 교과서 모두 가곡, 음악이론, 음악 감상, 연습곡,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곡은 학우, 봄노래, 산으로 바다로 등의 주제로 세분되어 있으며 각 주제별로 2~3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중서관 교과서의 특징은 외국 민요가 다양한 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록에는 각 악기의 그림과 사진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오선보를 넣어 학생들이 교과서에 필기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5. 백영사 “중등음악”

단기4289년~서기1965년판 교과서에서 가창곡 30여개가 수록되어 있고, 그 뒤에 창작, 감상, 음악사, 악전, 연주하는 그림, 리듬 연습, 코르위봉겐이 구성되어 있다. 백영사 교과서는 4289년판, 1963년판, 1964년판 교과서의 제재곡 구성이 같다.

1학년 교과서의 경우 1964년까지 백영사가 발행사로 되어 있으나, 2학년 교과서부터는 1960년 발행에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1963·1965년 한국교과서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3학년 교과서의 경우 1958년에 한국검인정교과서 주식회사, 1964년 한국교과서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이다.

6. 새로이 출판사 “새 음악 교본”

가창, 기악, 감상, 이론, 창작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감상은 가창 제재곡 작곡가의 다른 곡을 감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로시니의 <여름>을 가창으로 했다면, 감상으로는 <윌리엄텔>과 행진곡에 대해 감상하고 익히는 식이다. 단기 4289~서기 1964년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 각 가창곡 앞에 그 곡의 조표가 b, # 식으로 붙어 있다. 가창곡 제목에는 강조를 위한 네모 칸이 표시되어 있다.

7. 우종사 “중학교 음악”

1학년 단기4293년과 서기1963년 교과서 표지는 동일하며, 2학년 교과서의 경우, 단기4289년과 4292년, 4293년 책표지가 다르다. 단기4293년과 서기1963년 책표지는 같다. 3학년 교과서의 경우 단기4293년 교과서만 발견되었다. 교과서는 가곡, 기초이론, 감상, 창작, 연습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음악예술사 “새로엮은 중등음악”

음악예술사 교과서의 특징은 다른 교재에 비해 국악곡이 가창 제재곡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기4293년 당시 통화단위는 환이었는데 서기1963년 교과서부터는 원으로 변경되었다. 교과서는 가창곡 40여곡과 이론, 감상, 작곡, 기악, 익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3년판 교과서의 경우 표지에 1963년판이라고 인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종류가 있고, 1964년판의 경우 1·2학년 모두 1964년판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9. 창인사 “중학음악”

1학년 교과서의 경우 1956년부터 저자가 이홍렬, 이성삼, 윤용하 3인으로 되어 있으나, 2·3학년 교과서의 경우 초기에는 윤용하가 빠져 있다가, 1963년판에 공동저자로 되어 있다.

교과서 구성은 1학년이 노래, 악전, 화음, 형식, 음악사, 악기의 갈래, 창작, 발성연습, 가창기본연습(코르위봉젠), 2학년이 노래, 악전, 형식, 관현악, 음악사, 감상, 창작, 발성연습, 가창기본연습, 3학년이 노래, 악전, 감상, 음악사, 창작, 발성연습, 가창기본연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가창과 이해영역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천우문화사 “중등음악”

가창, 감상, 창작,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4290년 교과서와 4292년 교과서 표지가 다르나, 4292년 이후로는 동일하다. 단기 4290년 2·3학년 교과서 표지에는 見本이라고 도장이 찍혀있다.

1963년 교과서부터 가창이 가곡과 가창으로 분류되어 가곡에는 30여개의 노래가, 가창에는 발성 등 노래를 부르기 위한 이론적 측면이 언급되어 있다. 1963년부터 제재곡, 작곡자, 조성, 페이지가 균일하게 정리되어 있다.

11. 탐구당 “신 중등음악”

발행사가 단기4290년 탐구당, 단기4291년, 4293년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서기1963·1965년 한국교과서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교과서는 음정, 가창곡, 창작, 시창, 음악사, 악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년 단기4290년 교과서에는 見本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12. 형설문화사 “중등음악”

형설문화사 교과서의 경우 각 학년 한 부씩의 교과서를 발견하였다. 3개 학년 교과서 모두 1957년판이다. 악전, 성악, 음악전체에 대한 이야기, 악기론, 작곡, 음악의 기초 지식 등 이해영역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제재곡이 가창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기악연주를 실제로 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악기를 관, 현, 타악기로 분류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VI. 결 론

본고는 제1차 교육과정기(1955~1963)에 발행된 음악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로,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연구하되 첫 논문에서는 실태파악과 서지사항 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고찰 결과를 아래에 기술한다.

1) 도서관 소장 목록과 실제 소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본고에서 목록과 소장지를 일치시켜 확실하게 하였다.

2) 도서관의 통폐합 등으로 교과서가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었으나 본고로 확실하게 되었다.

- 3) 제1차 교육과정기 음악과 교과서의 발행 실태를 확실히 하였다.
- 4) 출판사에 따라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은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10년 이상 사용한 교과서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교과서 보관에 관한 인식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 5) 같은 내용의 교과서가 복수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중한 경쟁을 막고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판과 판매를 분리하였고, 판매를 위하여 공동체를 구성했던 것에 기인한다.
- 6) 단기력에서 서기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1962년부터였으나 음악과 교과서는 1963년부터 사용한 것은 교과서 출판 관례 때문이다.
- 7) 제재곡이 개정된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개정으로 보았다.
- 8) 교과용 도서 출판을 엄격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바뀌거나 표지가 바뀌는 것은 세부 항목 변경 때문이다.
- 9) 출판사별로 교과서 서지 사항 및 구성을 약술하였다.

이상으로 본고가 고찰하고자 했던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 공개가 필수인 시대에 즈음하여, 교육과정기의 첫 단추인 제1차 교과서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일본과 유럽의 교과서 보관 실태를 아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시대별로 각 과목의 교과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기초사료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 나타나는 내용 및 방법상의 한계 즉, 모든 교과서가 한 곳에 모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재정적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어 많은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내용 및 제재곡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구로 삼는다. 또한, 도서관 소장 목록에만 있는 수문각에서 발행한 제1차 교과서가 발견되어 연구에 포함되기를 고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9). 초·중·고등학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_____ (2007).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저자.
- _____ (2001). 초·중·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기준.
- 문교부(단기4288/1955). 중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5호 별책.
- 국립중앙도서관 편(1979, 1980, 1981, 1982, 1991). 한국교과서목록. 국립중앙도서관.
- 김경순 (1987). 시대적 변천에 따른 음악교과서의 고찰-해방후의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영복 외 (1998). 한국 교과서 목록 작성 및 그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소.
- 김정미 (2002). 미군정기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서지학개론편찬위원회(2004). 서지학개론. 한울아카데미.
- 성문출판사 편집부 (1998). 대한교과서사1948-1998.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유봉호(1992).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 이근술 (1966). 출판20년사. 서울: 출판문화사.
- 이종국 (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
- _____ (2005). 한국의 교과서상. 일진사.
- _____ (2001).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연구. 일진사.
- _____ (1991).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
- 이희재(1998). 서지학 신론. 한국도서관협회.
- 편집부 (편) (1999). 한국교육 100년사. 교육신문사.
- 하동호(1979). 서지학. 탑출판사.
- 한국교육개발원(1982).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한국교육개발원.

ABSTRACT

Research on Music Textbooks of the First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 Based on bibliographies -

Kim, Sang-Eun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examine music textbooks of Korea's First Education System, bibliographies of the era to re-establish the contents.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following facts: 1) the book list and the libraries that keep the books, 2) whereabouts of missing books due to consolidation of libraries, 3) textbook publication patterns, 4) problems and causes of disappearance of textbooks that had once used over 10 years, 5) problems and causes of multiple publication by the same publisher of textbooks that had the same contents, 6) reasons behind late adoption of the Gregorian calendar, 7) sudden amendment to textbook songs without regard to education system reform, 8) issues of changes in content arrangement or book cover despite tight management over textbook publication, and 9) bibliographies and contents of different publishers' textbooks. This research contributed to disclosing additional information and correcting wrong information about early music textbooks by thoroughly examining the first music textbooks. The textbook published by *Soomoongak* has yet to be unearthed to complete this study.

Key Words : The First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textbook publication pattern, bibliographies, contents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 11월 3일(11월 14일), 게재확정일: 12월 5일